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혜택 커진다

##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기부에 지역별 공제율 차등 제주 유형은 미확정... R&D·투자 세제지원도 강화

내년부터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넘게 기부하면 세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여건'을 반영했다.

2027년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로 나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는 10만원 이하 100%, 10만~20만원 44%, 20만~2000만원 16.5%의 현행 세액공제를 유지하지만 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의 경우 10만~20만원 구간 의 세액공제가 55%로 확대된다. 더불어 우대지역은 20만~2000만원 구간 세액공제가 16.5%에서 27.5%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약 19만원의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주가 어느 지역 유형에 속할지는 향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05억9074만원·10만5205건으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 기부금액의 87%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고유가 대응 어업인 유류비 한시 보전

도, 기준 가격 초과분 40% 지원

최근 고유가로 출어경비가 늘어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경유 유류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 40%를 보전하는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 드림(200ℓ)당 17만6940원 수준이었던 어업용 면세유는 8월 24만9920원으로 약 41% 상승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어업용 면세유 공급 평균 가격인 ℓ당 909원이다. 제주도는 공급가격이 이 기준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4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4월 공급가격이 ℓ당 1386원인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한 477원의 40%인 ℓ당 191원이 보전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이선 1732척으로 수협 급유소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가 대상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코스닥, 6.97% ↑... 코스피는 짙음 상승

삼전닉스, 하락 마감... 외국인 순매도, 개인·기관 순매수

코스닥, 10일 오전 매수 사이드카... 7거래일간 32% 상승

10일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한 가운데 코스닥은 급등세로 마감해 대조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40.89포인트(0.65%) 오른 6299.66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47.56포인트(0.76%) 오른 6306.33으로 개장, 오전엔 2% 넘게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선 약보합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자'로, 1조4936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5673억원, 8998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70억원, 4287억원 매수 우위였던 가운데 기관만 604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코스피 상승은 소폭에 머물렀지만 오른 종목 수는 697개로 75% 넘게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각각 0.43%, 0.14% 하락 마감해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스퀘어(1.06%)와 LG에너지솔루션(2.08%), 현대차(3.16%), 삼성바이오로직스

(0.84%),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1%) 등이 올랐으나, 삼성전기(-0.31%)와 KB금융(-2.33%)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기기(7.19%)가 가장 크게 올랐고, 고려아연(+11.66%) 등을 필두로 한 금속(6.46%)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피 대형주가 숨 고르는 동안 코스닥은 7% 가까이 급등하며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았다.

이날 코스닥은 55.66포인트(6.97%) 오른 854.47에 마감했다.

지수는 8.85포인트(1.11%) 오른 807.66으로 장을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며 오전 9시50분48초쯤엔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에선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달 3, 4일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코스닥은 17.61%나 올랐는데, 전체 6거래일 중 5거래일 상승 마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동안 32.5%나 올랐다.

이날 코스닥 상장사 1820개 중 1431개가 상승했고, 하락한 종목은 236개에 그쳤다.

연합뉴스

## 지난해 리콜 4.7% 증가

해외 리콜 제품 국내유통 늘어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65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년(2537건)보다 4.7% 증가했으나 2년 전인 2023년(2813건)보다는 줄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이 905건, 자진 리콜 865건, 리콜 권고 886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근거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 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은 851건으로 41.6% 늘어나 전체 리콜 건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강남 주택시장 '혼란'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3월 6만409건에서 9월 6만2516건으로 2107건(3.4%) 증가했다. 구별로 서초구가 8098건에서 8038건으로 6.1% 증가했고, 강남구가 9453건에서 9934건으로 5.0%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문제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실종돼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었고 당국 등이 이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리콜은 103.9% 증가한 259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작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반면 화학제품 안전법에 근거한 리콜은 165건(36.3%) 감소한 290건이었다. 시장감시단 운영,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 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요 품목별 리콜은 공산품(1282건·8.6%↑), 의료기기(308건·8.5%↑)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300건·24.8%↓)는 줄었다. 의약품(295건·13.5%) 역시 감소했다.

지자체 리콜은 254건으로 144.2% 늘었다. 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리콜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제주도정소식

여름철 폭염·고온 지속 예상, 야외활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필수, 무더운 시간대 야외작업·운동 자제 바랍니다.

제주지역 주간(週間) 고용동향

- (채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장 개방형 직위(-8.14.) ▲제주의료원 내과 전문의 1명, 간호사 4명(-8.10.) ▲제주연구원 에너지정책 연구위원(-8.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재난 코디네이터 1명(-8.18.) ▲2026년 연합뉴스 수습기자 모집 (-8.14.) ▲폴라셋 바리스타 신입 및 경력 모집(-9.3.) ▲2026년 하반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졸 신입사원 공채(-8.17.) 헤이딜러 Zero 전문평가사 제주도 주간반 2명(-8.29.)
- (취업특강) ▲취업특강 ('26.8.19. 고용센터"나를 브랜딩하다-이미지메이킹.)
- 문의: 노동일자리과 일자리팀 ☎710-3792~7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졸 3.0' 개편 출시

- 지원대상: 제주도민\* 청년 근로자
- 만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 \* 대졸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도민
- 지원내용: NH농협은행의 대졸 실행에 따른 이차차액 보전
-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이자지원: 신용등급별 1~3등급 3.5%, 4~9등급 4.5% 지원
- 상환방식: 5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2026. 8. 3. ~ 2026. 12. 31.
-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점 혹은 지정 방문상담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710-2543), NH농협은행 제주본부 및 각 지점
- \* 유의사항: NH농협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기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알림

- 추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헌신하며 지역발전 등을 통해 농축산업 진흥과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 포함) 또는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 농축산업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 단체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시상: 6개 부문 각 1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장)
  - 일반작물, 감귤, 친환경농업, 축산, 여성농업인, 유통가공
  - 추천기관/단체
    - 해당부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소속 조합, 감귤 축산 등 관련 협동조합 소속 조합
    - 단체: 농업인단체협의회 및 소속 도단위 단체
    - 1차 산업 관련 대학 이상의 학장 총장
    - 수상부문과 관련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 접수기간: 2025. 8. 18.~8. 28. / 11일간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방문 및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농업기술원 1층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
  - 이메일: kkwwo887@korea.kr
  - 문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760-7521~4)
  -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agri.jeu.go.kr) 참고
- 제2공향 장기화에따른 주민 고충 신청 청구 운영

  - 접수 기간: 2026. 8. 3.(월) ~ 8. 31.(월)
  - 대상: 제2공향 장기화로 고충을 겪은 주민 등 이해당사자
  - 접수방법: 주민소통센터(성산읍사무소 청사 옆)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th5kim@korea.kr
  - 문의처: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064)710-4865, 760-4882
  - 신청서식: 1) 제2공향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 제주소개 - 조직도 - 교통항공국 - 알림마당, 58595번 첨부서식 다운로드

☀️ 주간 농업농촌소식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시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5대 안전수칙

- 물 자주 마시기
- 가장 더운 시간(대략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 최소화
- 시원한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하기
- 보냉조끼, 쿨타올 등 보냉장구 착용
-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며, 동료가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에는 즉시 119 신고
- \*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 증상 있을 시 즉시 작업 중단
- \*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중지

여름철 농작물 관리요령

- 가뭄 시 음매류, 총채발레류 등 해충 밀도 증가가 우려되므로 정기적인 예찰에 따른 적기 방제 필요
- 고온기 약해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이른 아침에 농약을 살포하며, 약제 살포 시 3종 이상 혼용 지양
- 관수 및 방초매트 부초 토양피복자재를 덮어 토양 수분 증발·지온상승 억제
- \* 당근 파종 후 10a 당 20톤/일 이상 관수 필요 파종 3~4일 후 30% 차광망 피복 시 약 50% 이상 물량 절감 가능
- 관수 또는 농약 살포에 사용했던 호스 내부의 물이 고온에 뜨겁게 달궈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히 물을 배출 후 사용
- 시설재배 작물은 하우스를 최대한 개방하여 환기 철저
- 고온기 온도 저감을 위해 에어포그, 공기교반기, 해가림 시설 활용
- 에어포그: 온도가 33℃일 때 5분씩 반복 가동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간격 5분간 실행
- 공기교반기: 온도가 33℃ 넘을 때 가동하거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분 가동 후 10분 정지 반복
- 해가림 시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분 차광
- (양채류 육묘) 물은 가급적 오전에 관수하며, 50% 차광망 활용하여 온도관리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감귤 신제품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